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CONTENTS



01



우리의 노후, 어떻게 하죠?

02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03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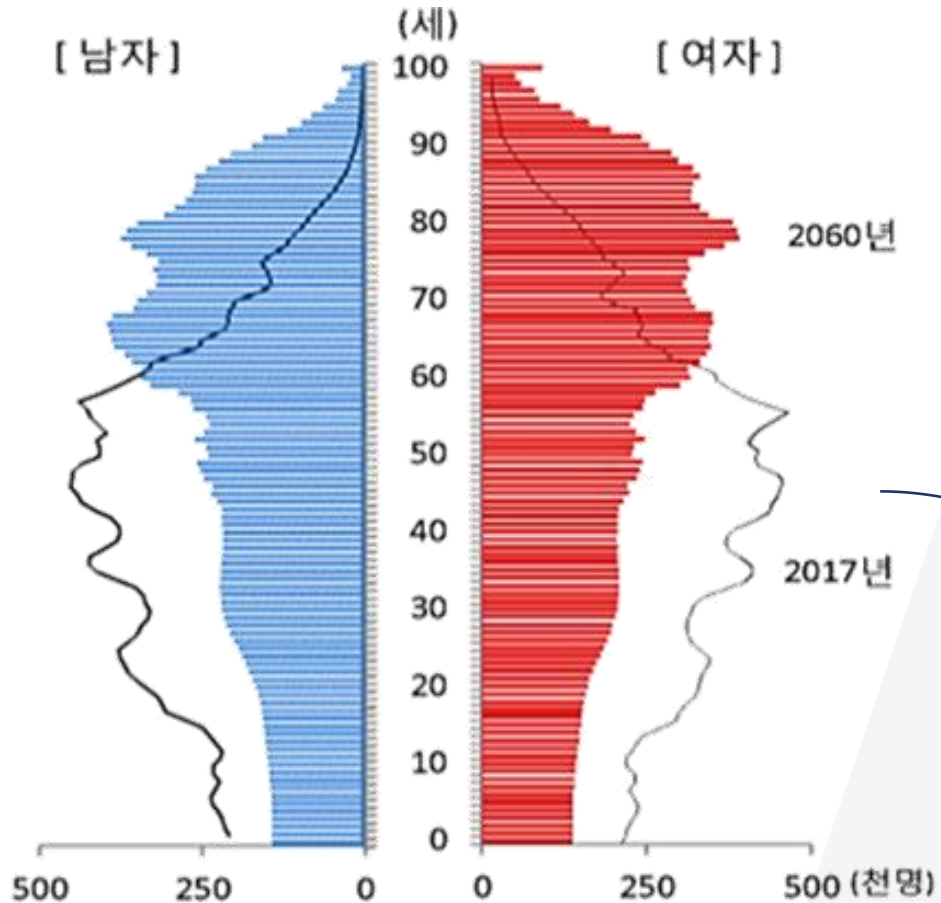
PART 1

우리의 노후, 어떻게 하죠?



1. 늙어가는 대한민국

| 인구 피라미드



*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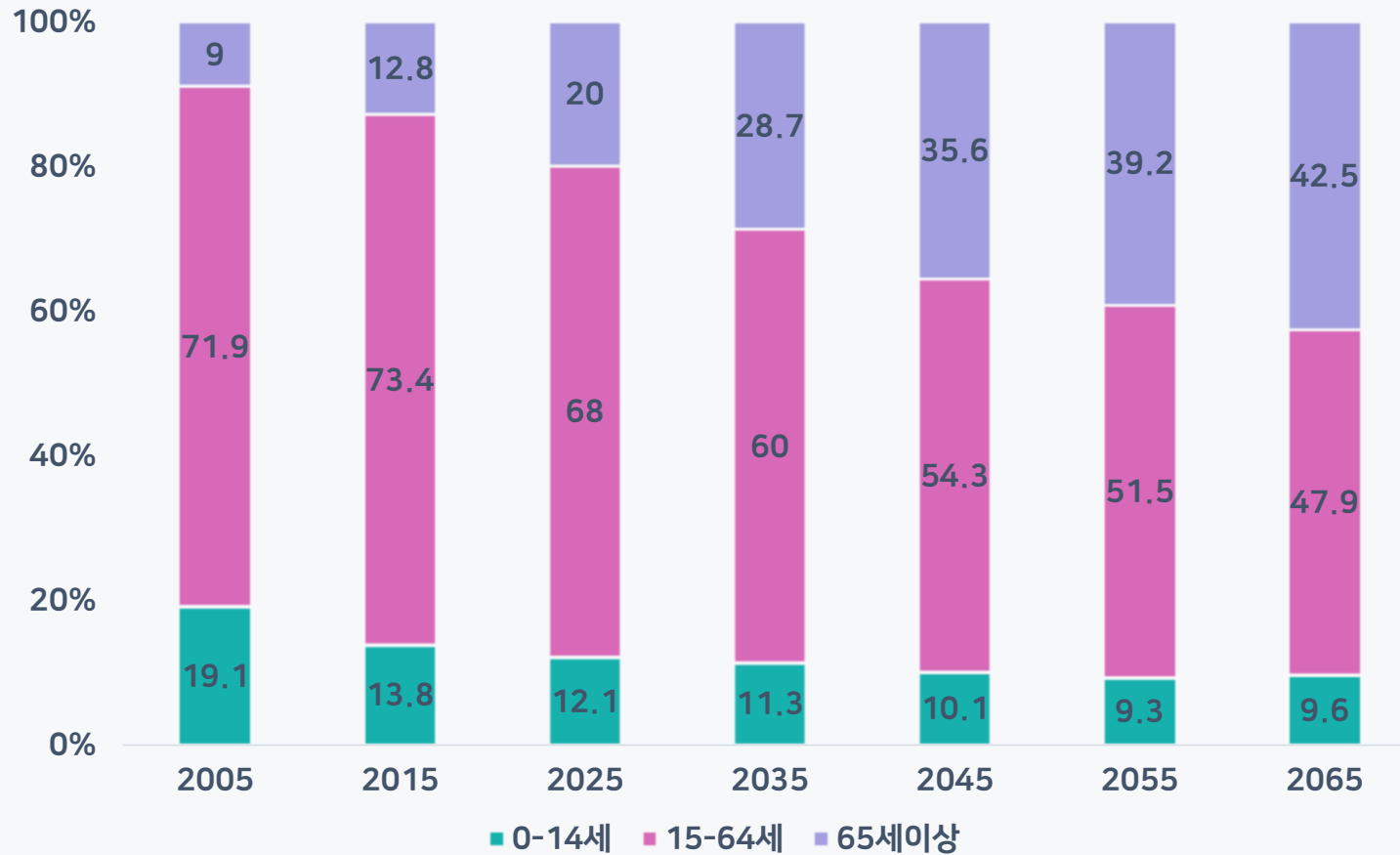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02%
(전체 5,175만 명 中 725만 명)

* 2017.8월 기준.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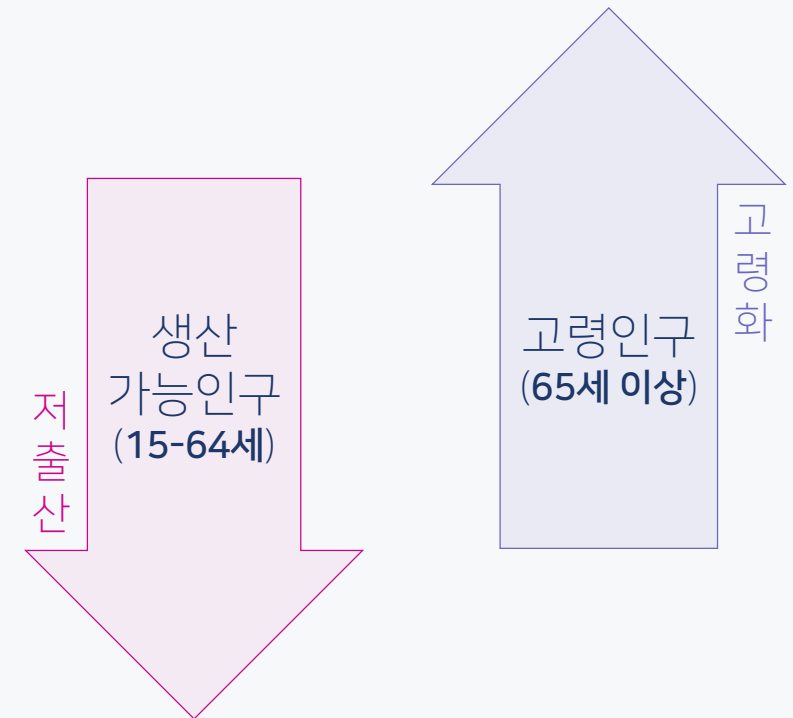
1. 늙어가는 대한민국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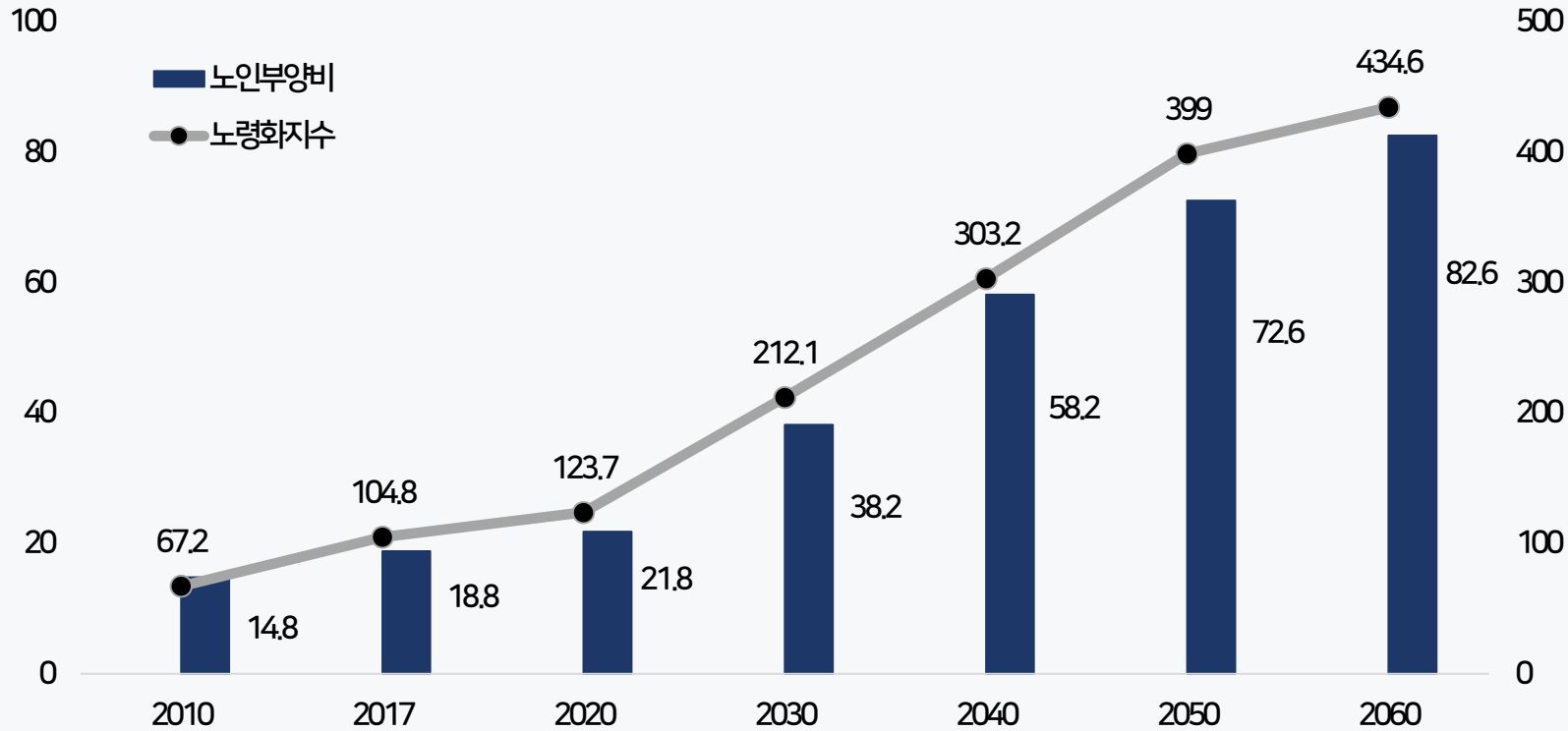
|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



1. 늙어가는 대한민국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명)

(유소년인구 100명당 명)



*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노인부양비 증가 속도가 빨라짐



노인부양비 생산가능 인구(15~64세) 대비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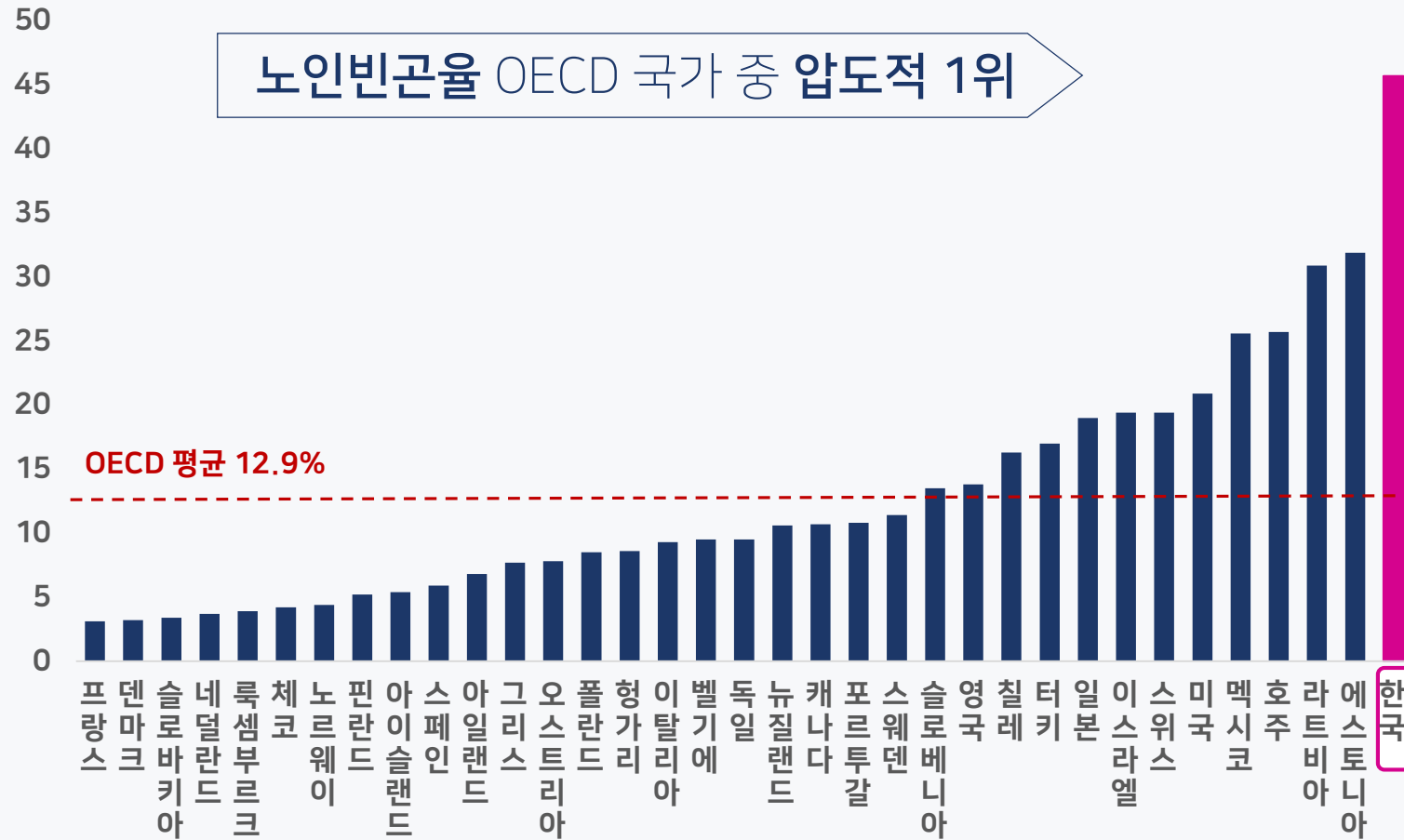
노령화지수 유년(0~14세) 인구 대비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율

2.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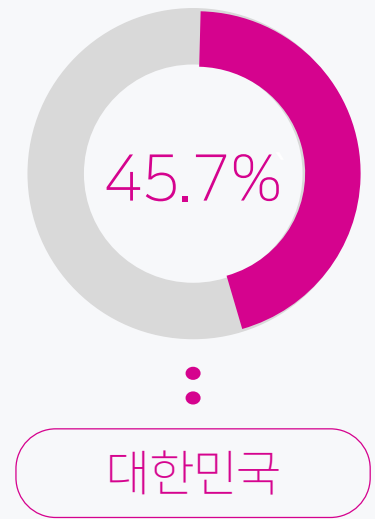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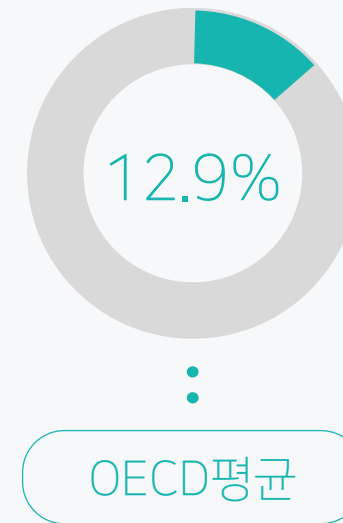


*출처 : [뉴스 인사이드-현장] 길 위로 내몰린 노년-노인 빈곤(2016.06.05.일)

3. 대한민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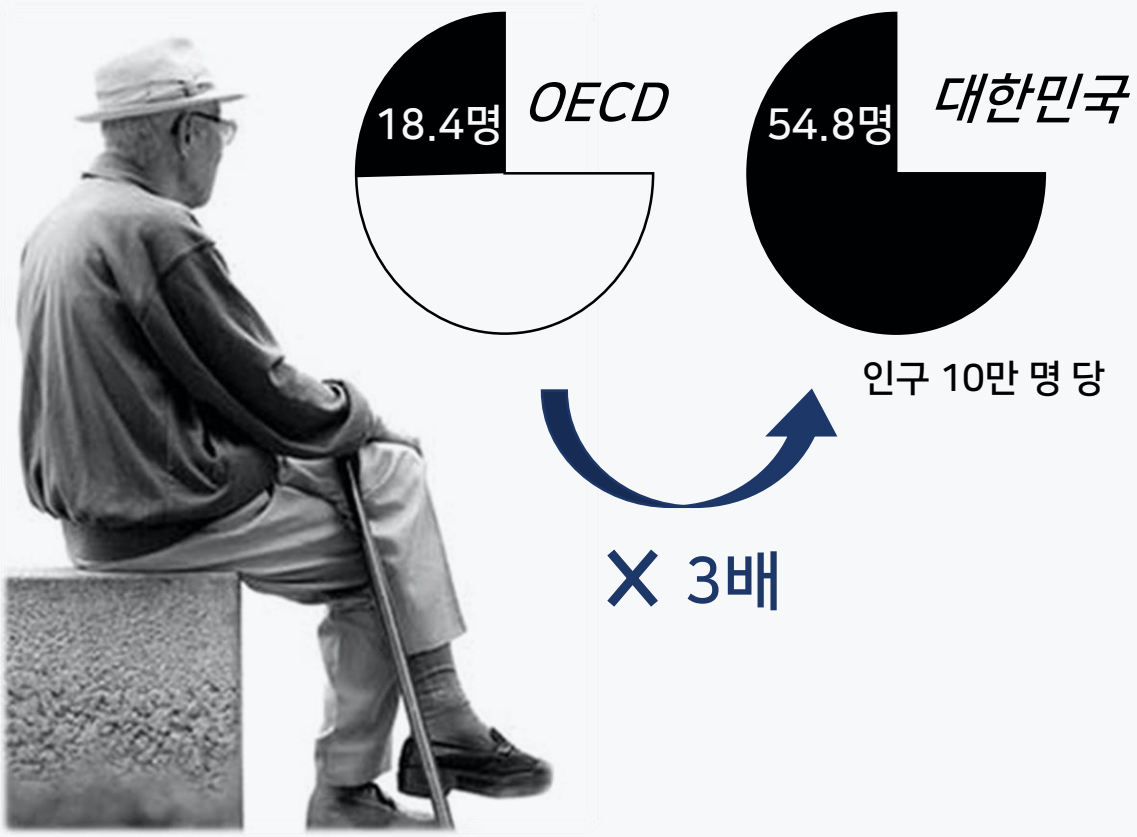
| 노인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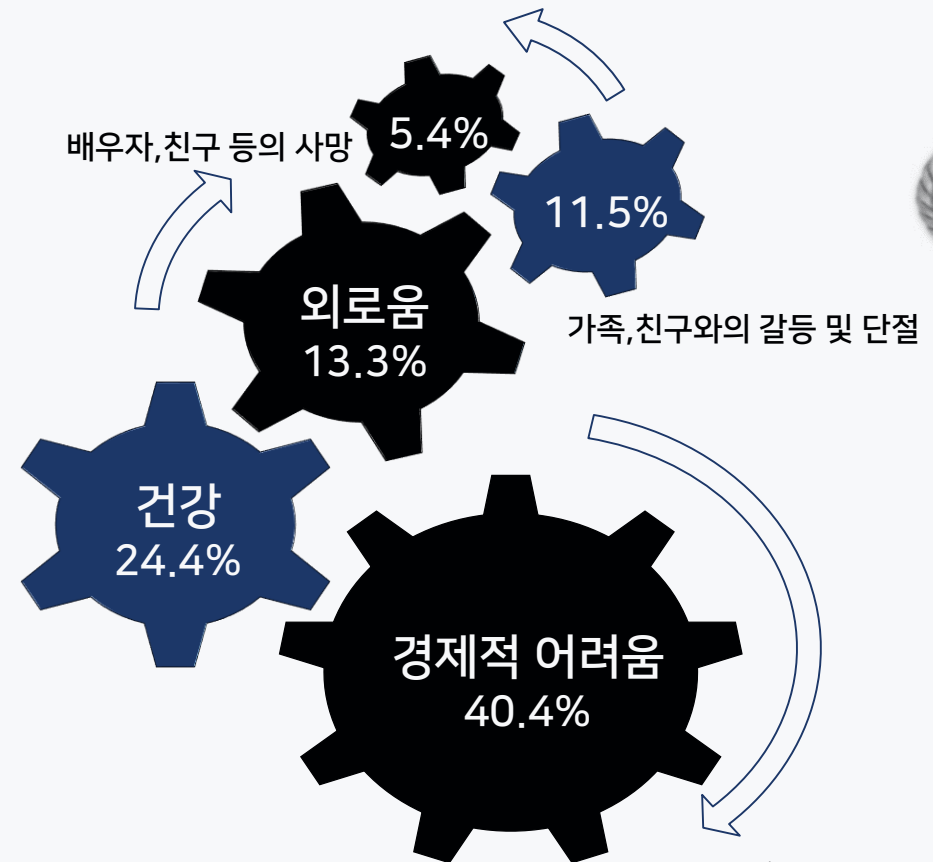
노인빈곤율 은퇴 노인가구 중에서 **중위소득**(우리나라 총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가운데)의 **50%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가진 가구 비율

3. 대한민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압도적 **1위**



| 노인이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주요원인**



*출처: 보건복지부 2014 노인실태조사

4.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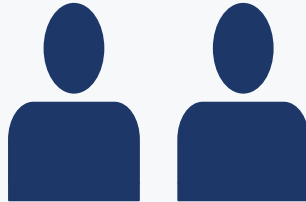
| 노후에 필요한 월 평균 필요 생활비

국민연금연구원
(2017. 2)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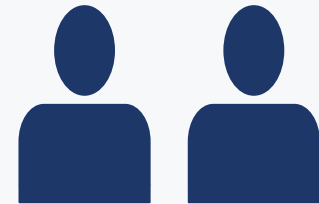
최소 114 만원
적정 158 만원



부부

최소 193 만원
적정 260 만원

한국금융연구원
(2017. 5)



부부

최소 183 만원
적정 264 만원

보건복지부
(2018년 기준)

501,632원

생계급여

836,052원

상대적 빈곤선
(50%) 기준

1,003,263원

상대적 빈곤선
(60%) 기준

1,672,105원

중위소득
(1인 가구)

4.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출처 : 통계청 2017년 사회조사 결과

| 국민연금 가입자 (2017년 9월 기준)

213만원 소득구간 미만 가입자

전체 가입자의 57%

전체 가입자 21,556,940명

4.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부모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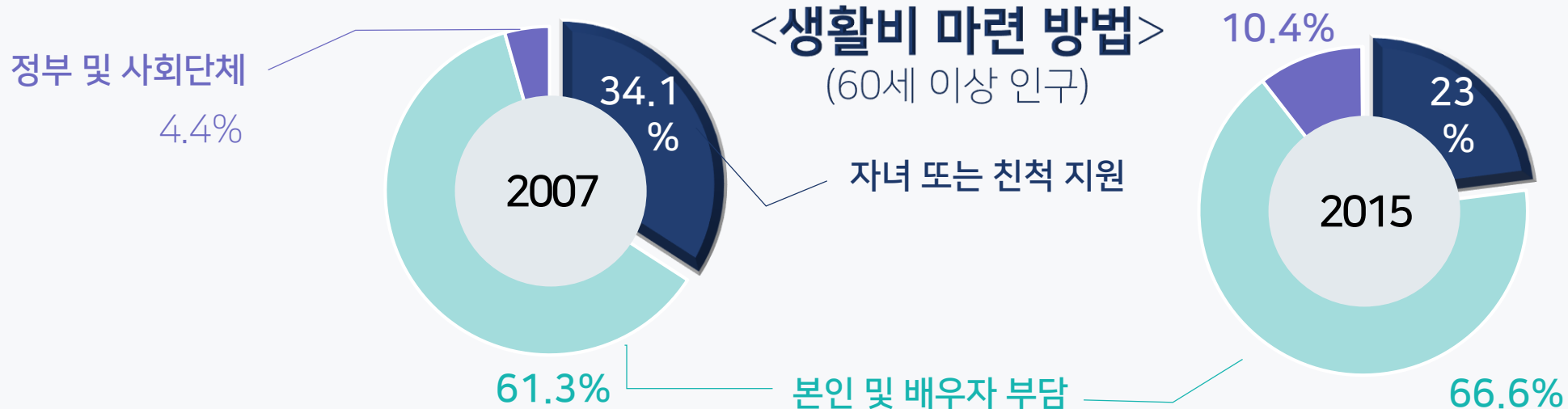
70.7% → 30.6%
(2002) (2016)

'부모 부양의 책임이
사회에 있다'

19.5% → 50.8%
(2002)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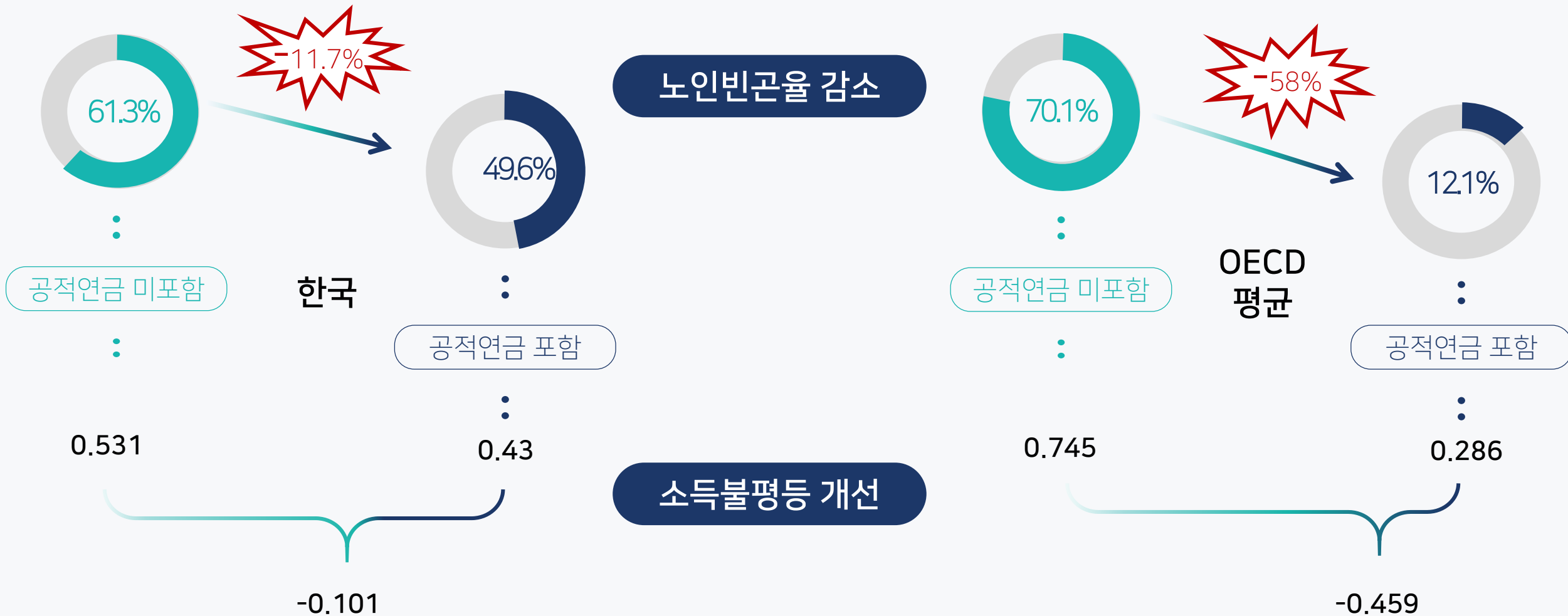


*자료=통계청, 1998~2016 사회조사 결과
/제공=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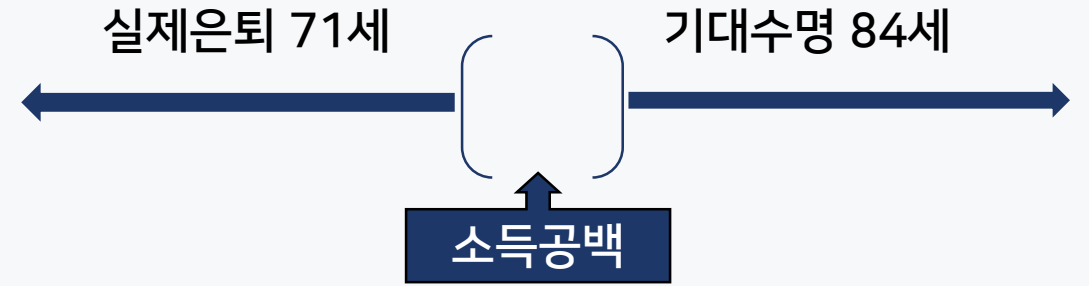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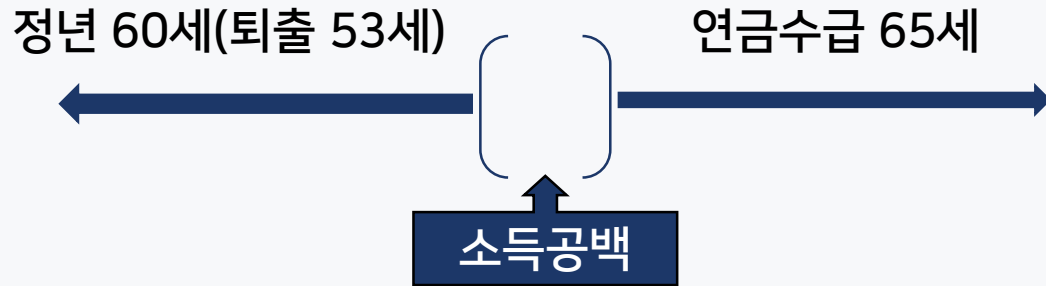


*출처 : 사회조사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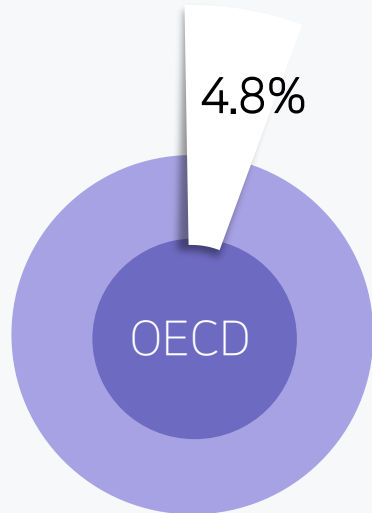
4.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 공적연금의 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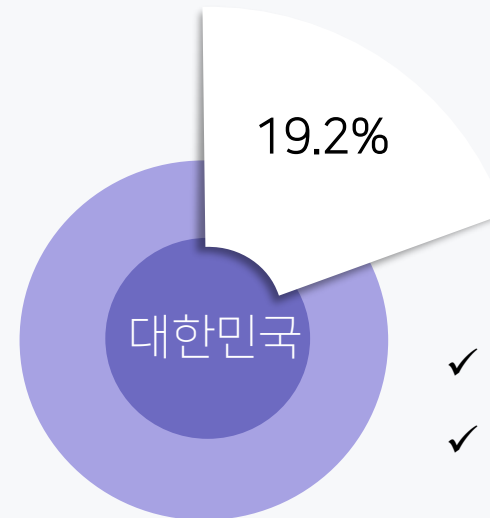
3. 대한민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 75세 이상 고용률



✓ 법정퇴직연령=실제퇴직연령=연금수급연령



- ✓ 연금수급 이전에 정규 노동시장에서 퇴출
- ✓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하면서, 가장 빈곤

4.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출처 : EBS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노후

PART 2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1.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2. 국민연금 너무 적은 거 아니야?

NEWS

연말뉴스

"평균 소득자, 국민연금 30년 붓고 받는 돈 67만원 그쳐"

입력 2017.10.20. 06:06 수정 2017.10.20. 16:01 댓글 2189개

월 218만원 봉급쟁이 20년 납부시 45만원 수령..소득대체율 45.5% 그쳐
남안순 의원 "노후 소득으로 부족..연금보험료 인상, 대체율 높여야"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월 218만원의 평균소득자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수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월 67만원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

mell****

내 노후 내가 알아서 할테니 지금까지 '수탈'해간 내 돈 내놔
2017-10-20 10:54 | 접기요청

빛방울 2017.11.06 20:21

금액이 연금 기능 상실...
거기다 지금도 팍팍한데 더 내려~
주는건 연금이 아니고 장례비인지 계속 늦추자네~
그냥 해체하고 원금 상환해라~

ssiung 3시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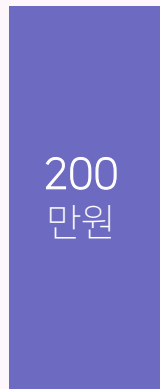
국민연금 폐지하고 내돈 내놔라

2. 국민연금 너무 적은 거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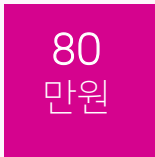
?! 국민연금 언제까지, 얼마 내고, 언제부터, 얼마 받을까?

60세 직전까지 소득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득의 9% 보험료를 납부하고, 61세~65세부터 연금 수령

소득대체율



40%



예시)

가입기간 평균소득 200만원, 40년 납부

200만원 X 40% = 연금 월액 80만원

연령별 수급시기

1953~56년생
→ 만 61세

1957~60년생
→ 만 62세

1961~64년생
→ 만 6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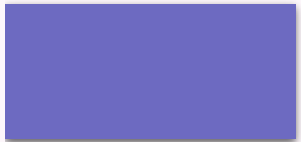
1965~68년생
→ 만 64세

1969년 이후
→ 만 65세

소득대체율 40년가입기준, 가입자의평균소득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

2. 국민연금 너무 적은 거 아니야?

| 총 납부액 대비 총 수령액



총 납부액 8,640만원



총 수령액 1억 9,200만원

보험료: 200만원 9% = 18만원

= 18만원 × 480개월

= 80만원 × 240개월

(평균소득 200만원 40년 가입, 20년 수급 기준)
cf. 2016년 통계청 생명표 기준 만 65세 기대수명 **20.3년**

|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의 9%

<직장에 다닐 경우>

사용자 근로자

<개인일 경우>

전액 부담

2. 국민연금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실제 사례>

2015년 현재 923,390원



평생지급

“죽을 때까지 받아요”

실질가치보장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요”



장애연금

“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요”



유족연금

2. 국민연금 너무 적은 거 아니야?

2017년 국민연금 평균수급액

노령연금



381,790원
(498,960원)

장애연금



439,050원

유족연금



267,600원

향후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

21~22년

2017년 신규노령연금 수급자 평균액

2017년 A값 218만원

× 실질소득대체율 24%

= 52만3천원

국민연금은

넉넉한 것에는 비해서는 많이 받지만 소득대체율이 낮고 가입기간이 짧아

불안정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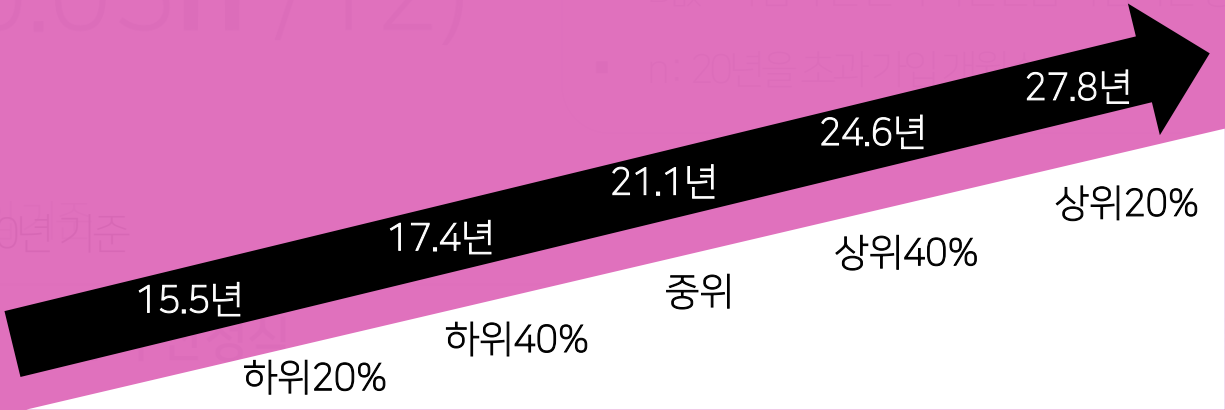
3. 저소득층에게 유리한가요?

기본연금액 산정식

$$1.2(A+B) \times (1+0.05n/12)$$

- A값: 수급직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액
- B값: 가입자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액
- n: 20년을 초과 가입 기간

문제는 가입기간!



200만원	연금액 = 1.2(200만원+200만원) X(1+0.05X240/12) =	960만원	80만원	40%
400만원	연금액 = 1.2(200만원+400만원) X(1+0.05X240/12) =	1,440만원	120만원	30%

4.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하다?

| 연금별 수익비교

월 198만원(2014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소득자가 2015년부터 30년 가입하고 20년 수급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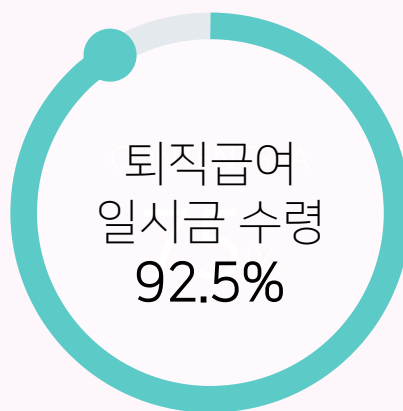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보험료	보험료율	9%	8.3%	9%
	월 금액	18만원	16만원	18만원
급여율	급여율	31.6%	12.5%	14.55%
	월 금액	63만원	25만원	29만원
수익비		1.9	1.01	1.08

*출처 : 오건호(2016), 내가 만드는 공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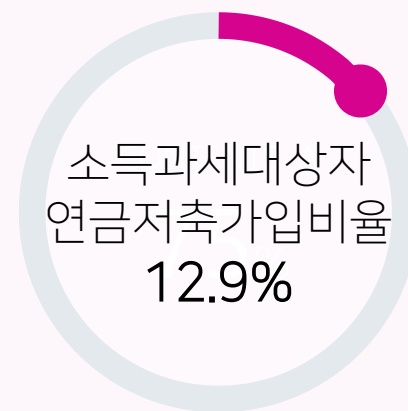
4.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하다?



임금노동자 1,880 만 명
퇴직연금 가입자 수 556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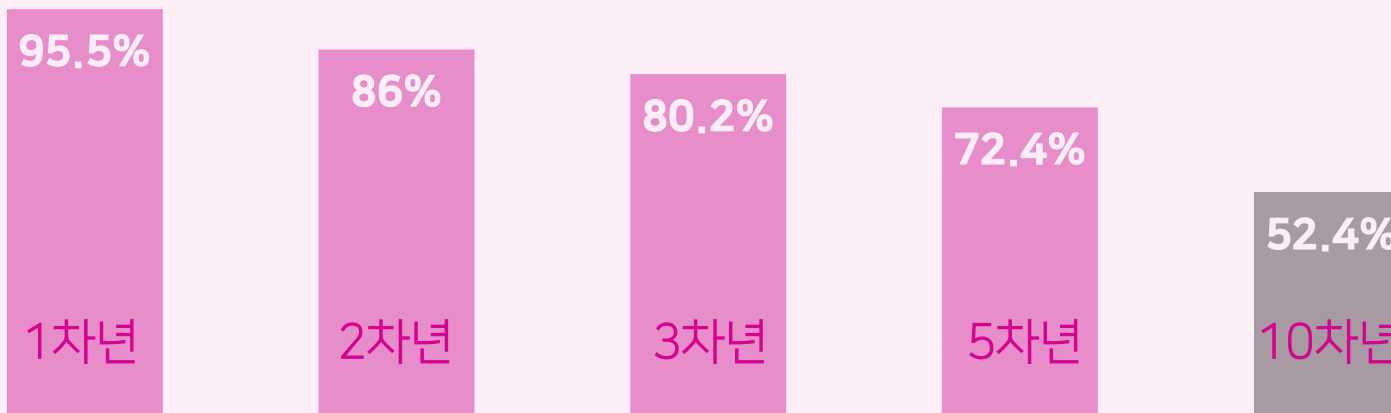


퇴직급여 전체 수급자 45,342 명
일시금 42,239명, 연금 3,213명



소득과세대상자 2,282 만 명
연금저축 소득공제신청자 294 만 명

| 연금저축 경과연도별 계약유지율



5. 국민연금 미래세대를 갈취한다?

문형표 “연금고갈 빛 후대로 넘기면 ‘세대간 도적질’ ”



5. 국민연금은 미래세대를 갈취한다?

연도	부과방식비용률	연도	부과방식비용률
2013	3.7%	2050	17.4%
2015	4.0%	2055	19.4%
2020	5.2%	2060	21.4%
2025	6.5%	2065	22.5%
2030	8.0%	2070	22.6%
2035	10.0%	2075	22.5%
2040	12.8%	2080	22.6%
2045	15.5%	2083	22.9%

*국민연금 재정추계보고서(2013)

✱ 기금 소진 이후 보험료로만 급여지출을 충당해야 할 경우 **필요 보험료율 21%~23%**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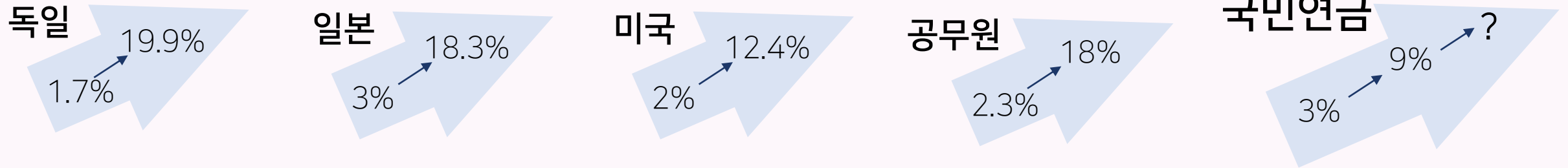
세대간 형평성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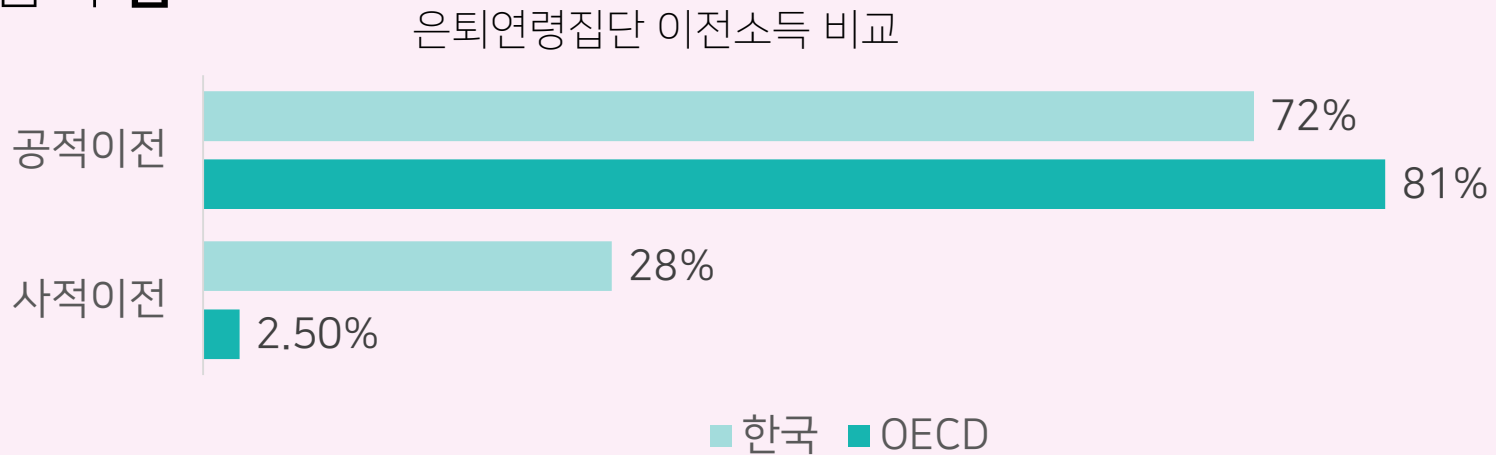
부과방식 비용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총액 대비 급여지출 비율

5. 국민연금은 미래세대를 갈취한다?

| 공적연금이 성숙하고, 사회적 부양이 정착될수록 **보험료 상승**



| 사적 부양 책임의 **감소**



5. 국민연금은 미래세대를 갈취한다?

| 소득성장에 따른 보험료 상승 부담 완화

예시) 100만원 소득자 보험료 9%와 400만원 소득자 보험료 13% 비교

국민연금 A값

✓ 수익비 관점에 따라 '세대 간 형평성' 강조는 편협된 관점

✓ 국민연금은 현세대가 이전세대를 사회적으로 부양하는 '세대 간 연대'

| 기대여명 증가

	1970년	2015년
60세	15.9세	24.6세
65세	12.9세	20.3세

| 사회발전의 혜택

1950년대와 현재 사회를 비교하면
교육, 주거, 인프라 등 사회발전의 혜택을 누림

6. 기금 고갈되면 못받나요?



*출처 : JTBC [팩트체크] '지금 보장 안 된다?'...국민연금 위기설 확산, 왜

6. 기금 고갈되면 못받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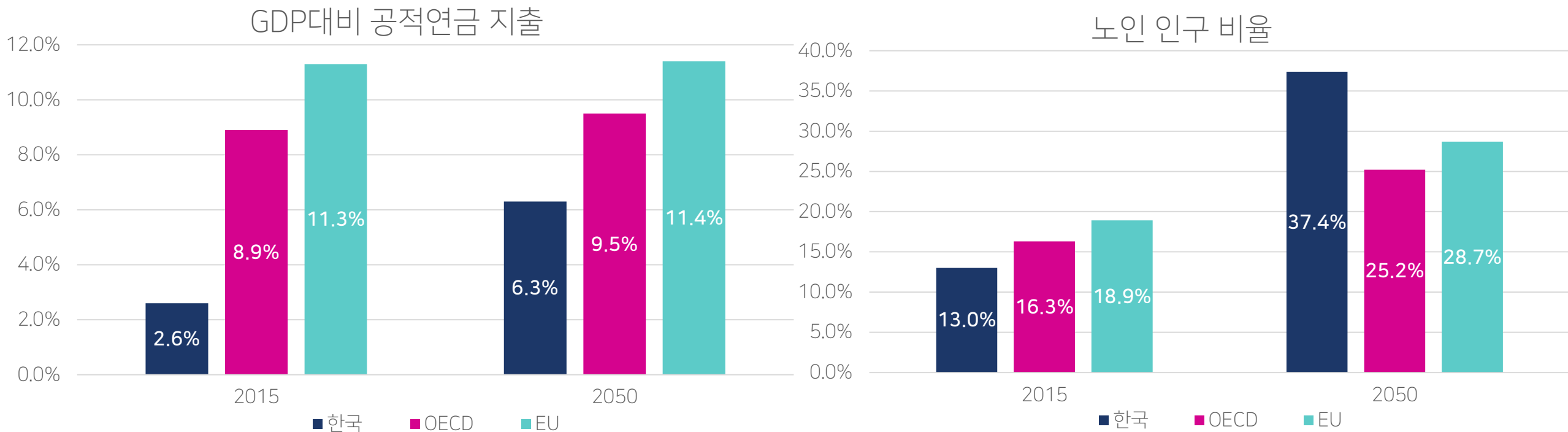
*국민연금 재정추계보고서(2013) (단위: %, 십억원)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GDP
		총수입	보험료수입	투자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31.1	3.9	2.4	1.5	1.1	1	2.8	1,344,421
2015	33.6	4.5	2.4	2.1	1.2	1.2	3.3	1,531,088
2020	39.3	5.1	2.5	2.6	1.6	1.6	3.5	2,155,210
2025	44.1	5.1	2.6	2.5	2.0	1.9	3.1	2,859,011
2030	47.8	5.2	2.6	2.5	2.5	2.5	2.7	3,624,205
2035	49.4	5.1	2.6	2.4	3.1	3.1	2.0	4,422,196
2040	47.4	4.9	2.7	2.2	4.1	4.1	0.8	5,257,143
2045	41.1	4.7	2.7	1.9	5.0	4.9	-0.3	6,182,966
2050	30.5	4.3	2.8	1.5	5.7	5.7	-1.4	7,315,384
2055	16.0	3.6	2.8	0.8	6.3	6.3	-2.7	8,583,907
2060	-2.9	2.7	2.7		6.9	6.8	-4.1	9,583,907
2065		2.8	2.8		7.4	7.4	-4.6	10,883,472
2070		2.9	2.9		7.7	7.7	-4.8	12,326,434
2075		2.9	2.9		7.7	7.7	-4.8	14,061,039
2080		3.0	3.0		7.8	7.8	-4.9	16,135,257
2083		3.0	3.0		7.9	7.9	-5.0	17,512,741

2060년 기금소진 이후 GDP의 4~5% 부족

6. 기금 고갈되면 못받나요?

|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액 및 노인인구 추계



- 205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37.4%, 공적연금 지출액은 GDP의 6.3%
- 현재 OECD는 8.9% 지출. 유럽국가의 경우 GDP의 평균 11% 이상 지출. 국가가 망하거나 연금이 지급 정지되는 경우는 없음
- 오히려 노인인구 대비 공적연금 GDP 지출이 적다는 것은 노인빈곤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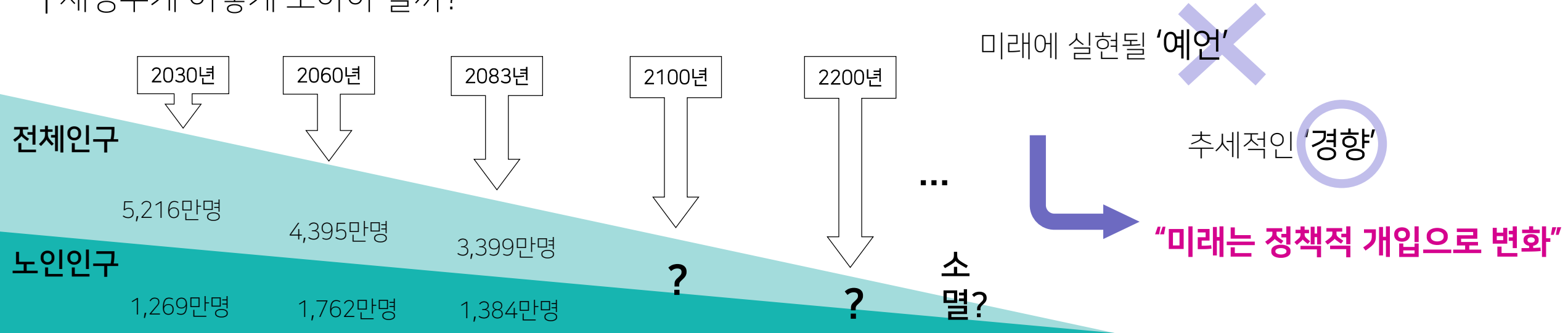
6. 기금 고갈되면 못받나요?

| 기금고갈은 국민연금의 파산일까?

NO! 기금 소진 시점 연기 또는 부과방식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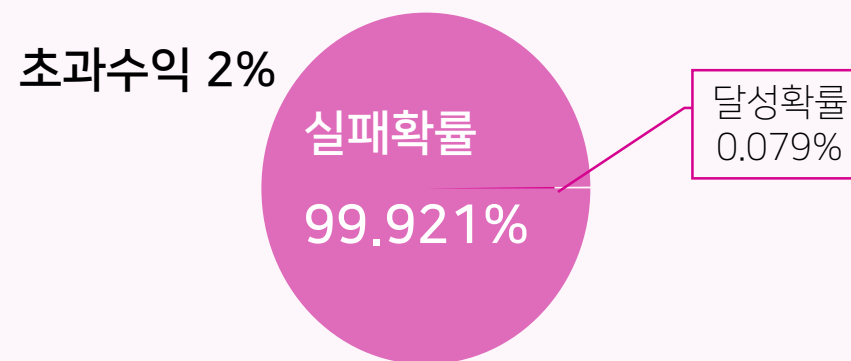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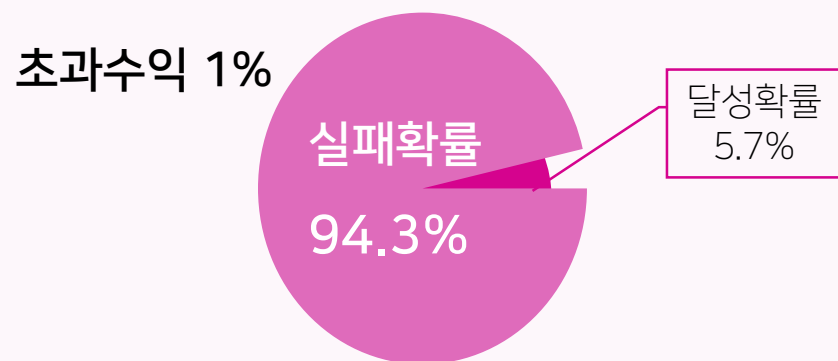
점진적인 보험료 상승, 재정지원, 인구구조 및 고용 안정 등
다차원적인 정책시행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 재정추계 어떻게 보아야 할까?



7. 수익률을 높이면 기금소진을 막는다?

| 확률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 (향후 40년 기준)



*가정 :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수익률의 연간표준편차) = 4%

| 실증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

	1년간	10년간	30년간
시장평균 +1%p	11.0%	1.0%	0.4%
시장평균 +2%p	5.1%	0.1%	0.0%

*지난 30년간(1985~2014) 미국 금융시장의 뮤추얼펀드 데이터 조사

7. 수익률을 높이면 기금소진을 막는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익률 평균
국민연금	한국NPS	-0.1	12.0	8.1	7.9	8.6	5.4	5.9	7.0	-0.2	10.8	10.6	2.3	7.1	4.2	5.3	4.6	6.2
	일본GPIF	-5.7	-2.5	-8.5	8.4	3.4	9.9	3.7	-4.6	-7.6	7.9	-0.3	2.3	10.2	8.6	12.3	-3.8	1.9
	캐나다CPPIB	-9.4	3.4	-21.1	31.7	10.7	17.4	12.9	-0.3	-18.6	14.9	11.9	6.6	10.1	16.5	18.7	3.7	5.9
	스웨덴AP3	-	-4.4	-12.4	16.4	11.4	17.9	9.7	5.1	-19.7	16.4	9.1	-2.4	10.7	14.2	13.7	6.8	5.2
직역연금	미국CalPERS	-7.2	-6.1	3.7	16.6	12.3	11.8	19.1	-5.1	-24.0	13.3	21.7	0.1	13.2	18.4	2.4	0.6	4.9
	네덜란드ABP	3.2	-0.1	-7.2	11.0	11.2	12.8	9.5	3.8	-20.2	20.2	13.5	3.3	13.7	6.2	14.5	2.7	5.7
국부펀드	노르웨이 GPF	2.5	-2.5	-4.7	12.6	8.9	11.1	7.9	4.3	-23.3	25.6	9.6	-2.5	13.4	15.9	7.6	2.7	5.0

*자료 : 각 연기금 연차보고서 및 홈페이지 참고(ABP 수익률의 경우 2005~2014년 연차 보고서, 2000년~2004년 홈페이지 참고)

PART 3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1. 적절한 소득대체율 보장

중위소득 (2017년 1인 가구)	1,652,931원
노후 적정생활비 (2017년 개인기준)	1,453,000원
노후 최소생활비 (2017년 개인기준)	1,040,000원
최저생계비 (2017년 1인 가구)	661,172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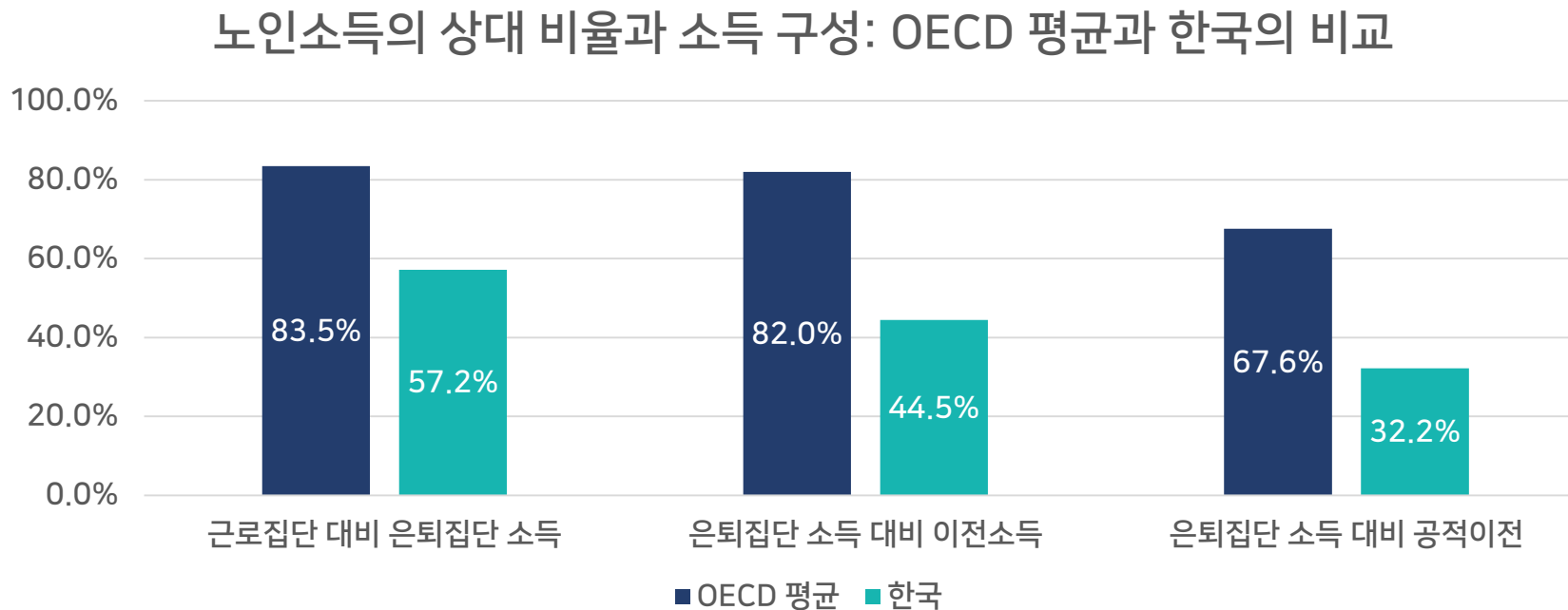
45 만원



평균소득월액 218만 원
가입기간 20년
직장가입자 기준(2016년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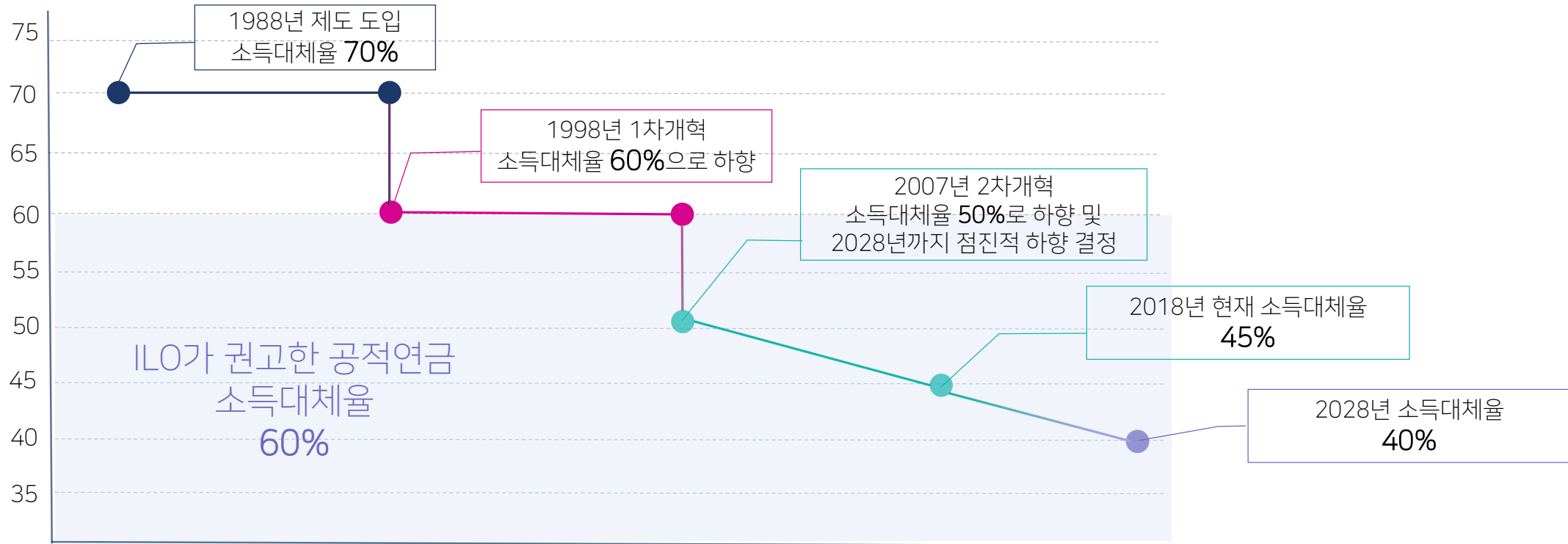
1. 적절한 소득대체율 보장

|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



- ✓ OECD의 경우 근로집단 소득 대비 약 83%가 은퇴집단 소득이며, 은퇴집단 소득 중 연금 등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2%, 공적이전(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8%임
- ✓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220만원을 근로집단 가처분 소득으로 본다면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약 124만원 수준이 되어야 하며, 공적연금이 노후 최소생활비(104만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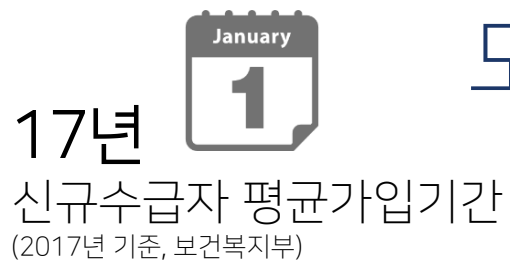
1. 적절한 소득대체율 보장



소득대체율의 추락 = 우리 노후생활의 추락

소득대체율
최소 50% 수준으로!

2. 사각지대 해소



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만으로도
모두의 노후가 보장될까요?



2. 사각지대 해소
-실질적인 가입기간 증가-

현행

개선방향

출산 크레딧

둘째 자녀부터 적용, 최대 50개월 인정

첫째 자녀부터 적용, 산입기간 제한 폐지
ex. 12개월 당 216만원 보험료 지원 효과

군복무 크레딧

최대 6개월 인정

군복무기간 전체 인정
ex. 189만원(21개월 복무 기준) 보험료 지원 효과

실업 크레딧

최대 12개월 인정

산입기간 제한 폐지
ex. 12개월 당 최대 56만 7천원 지원 효과

크레딧 제도 출산, 병역, 실업 등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2. 사각지대 해소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확대 -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보수 기준 상향 및 명문화



신규/기존 가입 차등 지원 폐지



두루누리 사업 대상에 건강보험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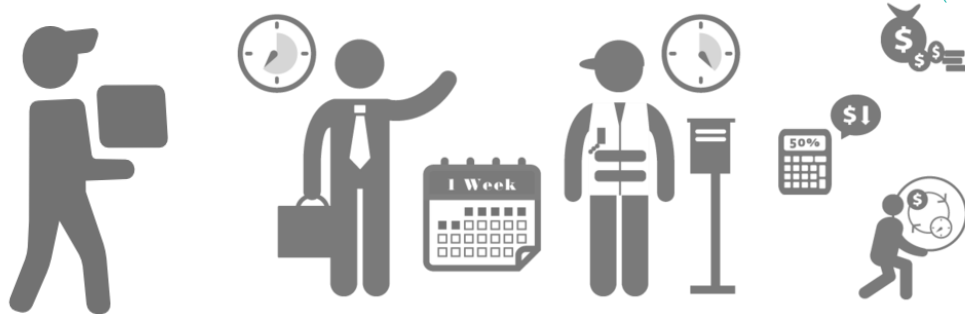


2. 사각지대 해소

-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가입자 전환 -

| 특수고용노동자 약 230만 명 추정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사업장가입자 전환

- ➡ 대표적인 저임금 직종으로 **노후 준비 취약**
- ➡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전액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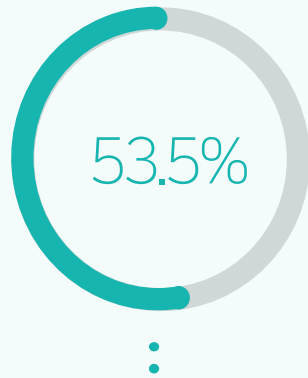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중략)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국가인권위(2017.4.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 및 의견 표명

2. 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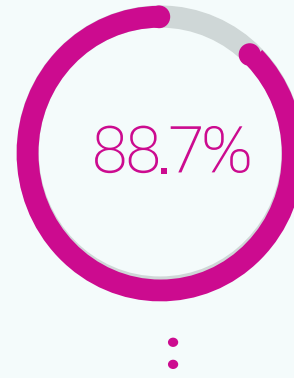
납부예외자

전체 지역가입자
813만 명 중
435만 명이 납부예외자



체납자

전체 지역 소득신고자
413만 명 중
163만 명이 체납자



기준소득월액 미만

지역가입자 중 기준소득월액
203만원 미만이 88.7%
(cf. 직장 가입자 : 45.6%)



※ 농어업인은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받고 있음
- 농어업 지역가입자의 체납률 12.6%
- 도시지역 체납률 42.1%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

- ✓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 및 체납 비율 높음
- ✓ 소득수준 역시 직장가입자에 비해 낮음

3. 국민연금 신뢰회복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



-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남인순 의원 발의안)

4. 기금운용 불신 해소



3조 1142억원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



한화, 풍산 등 확산탄 생산기업 투자



2356억원 손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불합리한 합병



4조 707억원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



서울외곽순환도로 고금리(최대 48%) 대출
해당구간 통행료 1km당 132원 수준(타구간의 1.3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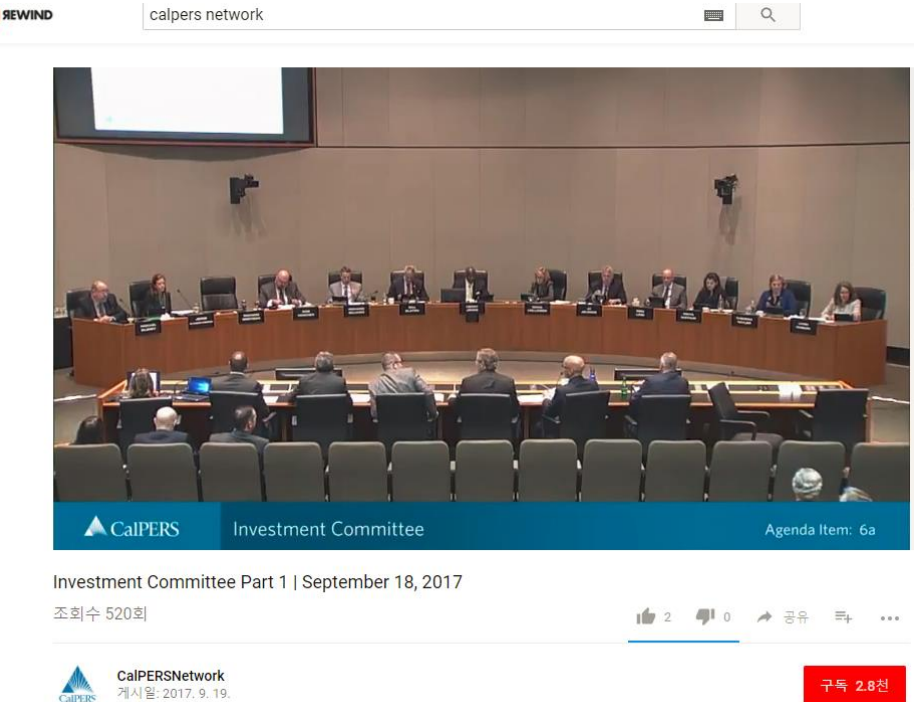


6조 3735억원
국내 술·담배·도박 기업(2013~2016년)

“국민의 노후자금,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4. 기금운용 불신 해소

|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의 회의 공개



“투명하고 민주적인 기금운용 체계 확립”

| 가입자의 대표성 ·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 개편
→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으로부터 독립**

| 기금운용 관련 회의록, 자산 · 투자 · 의결권 행사 내역 등의 투명한 공개

4. 기금운용 불신 해소

| 해외 공적연금 사회책임투자 사례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한화, 풍산 등 **확산탄** 생산업체 투자 제외



네덜란드 공무원연금기금
삼성 백혈병 문제 해명 요구 및 자체 조사

“좋은 투자는

Environmental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투자.”

사회책임투자 강화, 생색내기를 넘어 기금 투자의 실질적 원칙으로!

5. 공공복지인프라 투자



최저임금 이하 소득 노동자 비율 14.7%(2015, OECD)
성별 임금격차 36.7%(OECD 평균 15.6%, 2016, OECD)
경력단절여성 비율 20.6(2016, 통계청)
비정규직 비율 32.7%(2017, 통계청)
은퇴연령 52.6세, 평균수명 81.9세
전체 소비 중 주거비 지출 34.5%
자살률 28.7명(OECD평균 12명)
...
..

좋은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나라,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나라,
아이 키우기 어려운 나라,
노후준비가 막막한 나라

국민연금 재정기반 약화

5. 공공복지인프라 투자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의 가장 좋은 방법



국공립 어린이집
6.18%



공공임대주택
5.9%



국공립요양시설
1.2%



공공병원
9.2%

복지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출산율을 높이고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고

노인부양 부담을 낮추는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가장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연금 재정위기의 근본적 원인

→ 저출산 고령화, 불안정한 노동시장, 경제성장 둔화

더 많은 사람들이

출산율·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제고, 사각지대 축소

더 많은 기여를

경제 성장률·임금상승률·기금수익률 제고

더 길게 내고

청년·노년 일자리 안정

더 많은 급여를

급여적절성 확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



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2018년, 국민연금의 방향을 결정할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이 진행됩니다.

적절한 급여수준 보장과

사각지대 해소를 이루어 내고,

민주적인 기금운용과

책임성 있는 투자원칙을 만들어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어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 **국민연금 개혁**으로 시작합니다.